

GENDER JUSTICE POLICY

Lutheran
World
Federation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펴낸이 | 엘레인 노이어펠트 옮김 | 이지성

한국루터라이브 

Lutheran World Federation GENDER JUSTICE POLICY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한국루터리아워 만남의 글 20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펴낸 날 2015년 3월 20일
Editor 엘레인 노이어펠트
옮긴이 이지성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11
전화 02-318-3346~7
팩스 02-318-3319
홈페이지 www.lutheranhour.co.kr

등록 2003.10.13 제 302-2003-00059
copyright 2012 by LutheranHour Ministry All right reserved.
Korean Copyright 2012 by Korea LutheranHour

이 자료집은 Lutheran World Federation에서 기획, 편집한 책으로 기독교한국루터회와 한국루터리아워가 공동으로 번역, 편집 출판했습니다.

Editor Rev. Elaine Neuerfeldt는 LWF Secretary for Women in Church and Society 으로서, 이 자료집을 책임 편집했고 옮긴이 이지성 교수는 한국루터리아워 책임자이며 루터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contents

들어가면서 _ 01

이제, 젠더 정의를 공부할 시간 _ 03

젠더 정의에 대한 성서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_ 04

LWF 젠더 정의 원칙 _ 11

LWF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 _ 13

용어해설 _ 31

들어가면서

GENDER JUSTICE POLICY는 2013년 LWF 총회에서 의결된 정책 서입니다. 루터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LWF 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지구상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관계된 문제들이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Gender Justice 로 규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젠더 정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개혁’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Gender Justice 논의가 결국에는 온 세계에서 여성 안수라는 결실을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Dr. Martin Junge / LWF 총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

“너는 길에 꺾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네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예레미아서 31:21).

루터교세계연맹이 지난 10년 동안 연구한 젠더 정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교회가 이 과제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잘 알려줄 것입니다. 젠더 정의에 대해 궁금했던 문제들을 함께 물어 보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큰 밑그림과 더불어 작은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로만 울리는 젠더 정의를 넘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의 증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주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의 법령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9:7-10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계명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기쁨 가득한 삶으로 이끈다고 고백합니다. 그 교훈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정의와 존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책자는 젠더 정의 정책 원칙과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LWF 젠더 정의 정책은 전 세계 루터교 모든 구성원들이 젠더 정의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틀거리로 제안되었습니다.

I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정책 원칙

LWF는 gender justice에 대한 10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10대 원칙은 젠더 정의와 관련된 LWF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또한 앞으로 LWF 연맹의 행동을 점검하는 렌즈이며, 젠더 정의를 향한 LWF의 여정 앞에 놓여 있는 지도이며 표지판입니다.

I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

LWF 젠더 정의 정책의 방법론은 전 세계의 루터교 공동체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에 맞는 표현과 구체적인 방법들은 지역의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총무는 그 과정들을 수렴해서 LWF 젠더 정의 정책 진행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원 교회들 내에서 관련 그룹들이 프로그

램과 프로세스를 보다 쉽게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도구가 개발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이러한 과정은 젠더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적인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서적 토대와 이론적 근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1-2, 31a).

창세기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피조물이 아닌 것 처럼 보여줍니다. 또한 그 구절은 어떤 형태의 인간(남성)이 다른 형태의 인간(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주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창조에 대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간들이 나누어 놓은 배타적인 젠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단지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간혹 창조 이야기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그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임혀지고 있지만, 성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창조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적 근거를 찾는 또 하나의 출발점은 평등입니다. (창세기 1:27 참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살피기 위한 공동의 소명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한 끊임없이 돌봄과 사랑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젠더 정의란 다른을 포용하고 보듬고 사랑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을 함께 잘 보살피기 위한 청지기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6-27).

창세기 뿐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 구석 구석에서 젠더 정의에 대한 단초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여성을 대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마음으로 여성들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지 않고 동등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모두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모두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됨의 모습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3:27-28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젠더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LWF가 교회가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관계로 이해하거나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는 세상을 향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전적으로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LWF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젠더 정의를 향해 여정을 지나는 동안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I 의무 Mandate

2009년 10월, LWF 위원회는 <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젠더와 권력에 대한 신앙 성찰(A faith Reflection on Gender and Power) >이라는 문서를 받고, “LWF 젠더 정책의 발전을 이끌 후속 정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회원국들을 장려”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0년, 루터교 세계 연맹 제11차 총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inclusivity를 위한 LWF 원칙:

젠더 균형:

LWF Assembly, Council, Officers 그리고 모든 지역 수준을 포함한 다른 모든 위원회 및 특별 전문 위원회는 적어도 40 %의 여성과 적어도 40 %의 남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할당제는 청소년 대표들에게도 또한 적용됩니다.

각 지역별로 조직화해 내는 모든 활동들에서, LWF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LWF 스태프는 LWF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LWF 연맹 사무실의 간부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젠더 정의에 대한 결의:

우리는 회원 교회들이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성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러한 사안에 관한 LWF 정책 및 결정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회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 여성들에게 신학 교육 혜택이 가능하고 보장되도록 적절한 입법과 규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 교회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인간이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임을 회원 교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LWF 본부가 각 지역 교회들이 젠더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회원 교회에서 실행하는 맥락화된 젠더 정책 개발들이 LWF 본부 차원에서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LWF 본부가 안수를 받고 직위를 맡고 있는 여성 지도자, 특히 여성 주교와 총회장에게 대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LWF와 그 회원 교회들이 가정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역시 안전을 보장받고 정중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젠더 정의라는 문제를 상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 총회에 참여한 남녀 성 청소년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2년 콜롬비아의 보고타(Bogota) 회의에서, LWF 위원회는 LWF 젠더 정의 정책 초안을 2013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연맹 사무국에 요청하였습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은 2013년

6월, 제네바 회의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I 정의

LWF 젠더 정의 정책은 일련의 원칙들의 개요를 설명하고 연맹이 젠더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젠더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에 대한 공동 책임 청지기인 여성과 남성의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논의되었습니다. 젠더 정의는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 및 균형 잡힌 권력 관계를 지향하며, 차별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화적, 인간상호적 특권 및 억압의 시스템의 제거를 통해 표현됩니다.

젠더 정의 : 공동체의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자유함을 얻은,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조화로운 세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고 협력함으로써 불의와 억압의 문제에 대처하고, 전 인류의 번영을 육성하고 인도하는 공정한 젠더 관계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이끌고 복된 삶을 일구기 위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고, 성찬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다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바로 선물입니다. 한가지 선물이 다른 선물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름은

불평등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젠더에 대한 관점은 관계적이며 다른 사회적 범주와 상호 작용합니다. 교차적 접근법은 정체성의 특정 측면이, 상호 관련되는 차별의 원천임을 전제합니다. 성별, 인종, 민족, 연령, 신체장애 및 계급 등의 범주가 개인적, 구조적 층위에서 상호 연관됩니다. 이러한 범주들은 불평등의 시스템으로서, 비록 지배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 역시, 인종, 계층, 계급과 나이에 따르는 억압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젠더 문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교차 지점에서, 조직은 변화를 선도하려는 계획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및 구조는 정의가 행해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과 기관에 의해 방향 설정됩니다. 국제 연합(UN)과 같은 글로벌 국제 기구는 국가와 개인들의 그룹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실제적 정의를 개념화하는 이러한 방법은 LWF 젠더 정의 정책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FBO) 및 교회에서는, 정의 개념이 성서적, 신학적 이해와 연계됩니다. 정의는 성서적, 예언적, 신학적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 접근법을 제공하며, 인권의 관점 및 신학적 개념과의 대화 관계에 있는 도구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려고 시도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과 원칙 및 방법론 개발은 젠더 정의의 영역에서 위의 서약을 이행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모든 활동 및 구조에서의 젠더 주류화를 보장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준 : 젠더 정의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제기될 필요가 있는 중심 문제 중 하나는 젠더 억압으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래의 기준들 중 일부는 젠더 정의에 대한 태도 혹은 조직 구조에서의 총체적 변화를 일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No harm approach: 어떠한 생명이나 능력에 대한 폭력과 상실은 사회나 종교적 특권 없는 단체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 지표 정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수); 평등한 참여 관련문제 (질)
-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서의 평등한 참여 - 양과 질
-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및 사용권
- UN 및 인권 기준과 조약의 적용

각 상황에서의 특정 포인터, 사실, 수, 의견이나 인식은 정책에 기재되어 있는 젠더 정의 원칙의 이행을 위해 맥락화된 행동 계획에 있어서의 변경 또는 진행 상황을 나타내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I 목표

LWF 젠더 정의 정책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및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 젠더 정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지향 및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은 정의와 존엄을 증진하는 맥락화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연맹과 그 회원 교회, 교구, 그룹 및 조직들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I 목적 : 왜 젠더 정의 정책인가?

젠더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 규범, 가치 또는 권력 관계에서의 변화를 주도해 낼

창조적 추진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의 채택이 회원 교회와 단체들은 이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행을 위한 지침을 포함한 정책을 젠더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약속으로 인식합니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을 독려하고 의미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의사 결정 수준에서의 영향력, 신학 교육 및 형성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이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교회 생활 참여도를 분석합니다.
-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도록 전통적으로 사회화된 역할을 토론하고 성찰하도록 격려하여, 교회 및 사회적 삶에서 전통적, 문화적으로 할당된 과업을 넘어서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역할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재능과 자발적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역동성을 풍부하게 발휘하도록 합니다.
-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할 때, 텍스트의 의미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성서 해석에 대해,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새로운 해석에 대해 토론하고 성찰하도록 교회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남녀 평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 및 세속의 지도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LWF 연맹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은 가치들에 대한 표현이자,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과 방향을 제공해주는 비전입니다. 정책은 지향하는 바의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LWF내에는 여러 측면의 정치적인 연계 고리들이 존재합니다. 회원 교회들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와 책임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맹이 구성됩니다.



LWF는 자율적 회원 교회의 한 도구이며 어떠한 위계적 권위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관에 분명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정관 제 III조, 본질과 기능 항목에서, 회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동의하며 설교대와 제단을 통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루터교 세계 연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단결된 증인으로서 결속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회원 교회들의 지원 활동, 인간적 욕구의 경감, 평화와 인권 그리고 사회 및 경제 정의의 증진, 하나님의 창조와 자원의 공유에 대한 관심;

또 나아가, 협력 연구를 통한 자기 이해와 회원 교회들 간의 영적 교감.

그럴 때 정책은 LWF가 회원 교회들의 단결된 증언, 인권 및 정의의 그리고 자기 이해 증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혹은 별개의 책임 영역에서, 연맹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상세히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I | 이사회 결의

2013년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기구의 모든 조직들은 젠더 정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틀로서 LWF 젠더 정의 정책 및 (원칙)을 채택한다.

LWF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을 수용하고, 그 방법론이 지역 상황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및 교회들에게 정책의 실행을 권고한다.

연맹에서의 LWF 젠더 정의 정책 실행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고 필요한 요소를 총무에게 요청한다.

I 책임의 수준

LWF 정관에 따라, 정책 실행에 다음의 단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총회, 이사회 및 임원 회의는

-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연맹 사무국의 업무를 조직화하는 데 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관리 기관은 여성과 남성에게 관한 정책과 결정 사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사업 계획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LWF 지역 위원회와 연맹 사무국은

- 젠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작업을 계획해서 궁극적으로 양성 평등과 젠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 교회들은

- 총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 및 결의 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상호 책임 하에서 젠더 정책의 맥락화를 탐색하는 작업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동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회원 교회의 상황에 따른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회원 교회들은 상호 의존과 책임 하에 LWF와 함께 걸어간다는 선택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결정 및 결의 사항의 적용과 맥락화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 소 연대 모임들은 (NELUC 등)

- 각 지역들간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나누고 젠더 정의를 지역에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연대 모임들은 자신들만의 젠더 정의 방법론을 도출하고 상호 책임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들의 연대는 더욱 확고해 질 것입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 원칙

LWF는 다음의 사항들에 서약한 교회들의 연맹입니다:

1.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정의를 선포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로서 젠더 정의를 육성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으로서 양성 평등을 지향합니다.
2.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성, 정의, 포용성, 참여, 상호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3. 의사 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선거권 및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성과 성별 및 세대 간 균형에 관한 LWF 총회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역 및 각 지역교회에서 적용합니다.
4.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젠더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양성 평등 문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불평등한 부의 분배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를 지원합니다.
6. 젠더 정의에 참여하는 변화된 남성성 모델을 제시하면서, 남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7. 리더십 및 의사 결정 단계의 구조적 관행에 따른 여성 참여를 반대하는 견고한 장벽에 대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처합니다.
8. 핵심 조직, 정책, 시스템, 예산집행, 인적자원 관리, 인사권, 대표권, 교육, 관리 및 의사 결정 기구들이 성 평등에 기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원할 것을 보장합니다.
9. 젠더 분석이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운영 단계, 즉 사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10. 젠더 정의는 신학, 예배 및 신앙 생활의 모든 측면과 연관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

LWF 젠더 정의 정책 방법론은 젠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이 방법론은 젠더 정의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계획, 시행,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각 지역들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토착화된 개념과 언어로 이 방법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See** 본다는 것은 각각의 현실과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Judge**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 및 상황에서 젠더 정의에 반하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성서, 신학, 그리고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ct** 행동한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읽고 판단한 후, 각 지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see): 지금 우리 공동체는 젠더 정의의 여정 어디쯤에서 있습니까? 우선 여성 참여와 젠더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 참여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젠더 및 특히 여성이 직면해야 하는 장애들에 대해 현실을 관찰하고 각 교회들의 다양한 소리를 모으는 것이 LWF 젠더 정의 정책 실행의 첫 단계로 제안됩니다.

젠더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구축하는 과정은 결코 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판단하다/분별하다(judge/discern): 성서 및 신학적 토대.

왜 루터교회에서 젠더 정의가 중요합니까?

성경과 루터교 전통은 루터교회의 신앙의 토대이며, 젠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렌즈입니다. 신앙의 언으로, 성 평등은 '젠더 정의'로 설명됩니다. 정의는 평등한 관계를 논의하는 출발입니다. 정의는 일종의 예언적 선언이자, 변화를 가져오고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토대입니다. 정의에 대한 성서적 개념은 신학적 논의에 스며들어 있고, 이 논의 전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젠더 정의는 루터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루터 신학의 렌즈를 통해 분석됩니다.

행동하다(act): 실행과 맥락화.

이 세 번째 부분은 실행을 위한 전략적 원칙과 지침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은 7단계로 전개됩니다 - 가치와 서약에 대한 서론에 이어, 실행을 위한 전략의 리스트가 소개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은 지역에 맞도록 설정되며, 서로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정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젠더 정의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참여 과정으로 개념화되어 왔습니다.

7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북미 및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 142 회원 교회를 가진, LWF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부 사무국

의 업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운영되지만, 시행되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로 대화를 하며, 명료한 논변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취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삶 속에서의 관계 및 구조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 방법론적 틀은 정책에서 규정된 원칙의 일부를 맥락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질문을 던지고, 문맥을 읽어내는 작업이 초기 단계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대화, 그리고 발전과 구조, 문화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평가 모델과의 대화에서 신학적 성찰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분석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 및 가치들을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행 및 성취야말로 기대되는 그리고 필수적인 최종 성과 및 결과입니다.

각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가 수용되고 공유되는 행위, 믿음, 가치, 상징들을 통합하는 지식의 한 체계로 정의될 때조차도, 문화 개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맥락화의 과정은, 문화의 구성요소들 및 역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각 맥락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우선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만으로는 다른 현실을 좌우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젠더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상호 학습 및 공유가 교회 및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구체적 행동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은, 축하입니다! 함께 하며 삶과 교회의 신학에서의 결정적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하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하고 있음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니,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홀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손 맞잡고 걸어갑시다. 그러나, 와서 함께 하십시오.

(Thuma Mira 221, Deus chama a gente pra um momento no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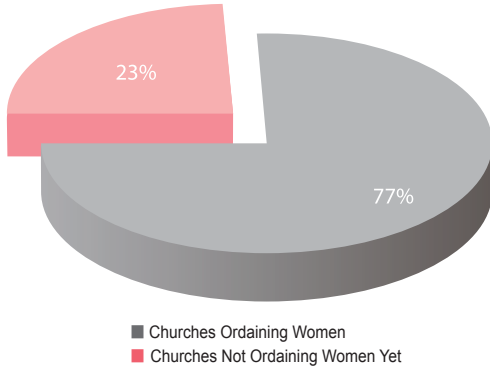
I 우리 교회는 어디쯤 서 있을까? LWF 그리고 포용성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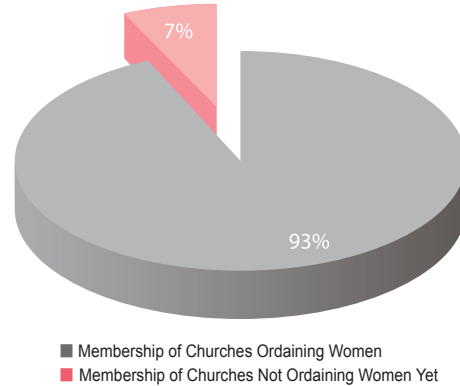
수십 년 동안, 루터교 세계 연맹은 포용성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삼아 왔습니다. 포용성을 토대로 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초기 결정 사항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 1952년 독일 하노버 LWF 제 2차 총회에서, 여성 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성 분과는 1975년 여성 데스크의 최초 자문위원회이며, 전신입니다. 여성 데스크는 LWF 제 5차 총회인 1970년 프랑스 에비앙에서 제안되어, 설치되었습니다.
- 198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제 7차 총회에서 여성 및 평신도의 참여에 관한 획기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적어도 40%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할당제”를 제정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제 8차(쿠리티바, 1990)와 제 9차(위니펙, 2003) 총회에서 이 결정사항이 재확인되었습니다.

Percentage of LWF Member Churches Ordaining Women



Percentage of LWF Member belonging to LWF Member Churches Ordaining Women



The right-hand pie chart reflects that vast majority of the 70.5 million Lutherans in the communion belong to an LWF member church that ordains women.

- 연맹 사무국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와 위원회는, 여성 안수가 여성의 재능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특별한 실천 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논의는 여성 차별을 넘어서는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담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며, 삶 및 포용적 복음 선포에 대한 공공연한 증인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성 안수가 단 하나의 목표는 아니지만, LWF의 포용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과 남성의 온전한 참여는 포용성을 향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LWF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는 개념인, ‘ecclesia semper reformanda(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구현합니다.

LWF는 여성의 온전한 참여를 지원하는 사려 깊고 합의된

결정사항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할당제는 총회 및 위원회와 같은 LWF의 제도적 구조 내에서 여성 리더십을 지원하고 진행시키는 촉매제입니다. 할당제는 여성들이 여러 수준 및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실질적 장애물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LWF 관련 여성 단체들을 통해 이웃에게 봉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은 사회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젠더 시스템 및 관계가 일부에게는 특권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억압과 고통을 야기하여, 교회와 사회에서의 공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에, 교회가 충분히 대처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할당제는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종종 온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심각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결정된 사항들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사이에 단절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단순히 할당 인원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할당 인원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지만, 포용성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 지기도 합니다. 여성 할당제 혹은 청년 할당제가 형식을 넘어 내용적으로도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LWF 랜드마크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No”라고 말하는 예언적 목소리입니다. 그 예언적 목소리는 교회 내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폭력과 싸우기 위해 마련해야 할 모든 것들을 논의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교회 및 교회-기반 단체들의 업무는 불의에 대한 저항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천, 지원 작업, 신학적 성찰은,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성을 밀쳐내는 종교와 문화 간의 위험스런 빈번한 연대를 해체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및 종교에 대한 중요한 접근 방식 중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LWF의 행동 계획, 즉 여성에 대한 폭력에 “No”라고 말하는 교회의 언명에 대한 성찰 및 실천으로부터 얻어진 경험은, 신앙이야 말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독교도의 소명의 한 측면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죄가 되며,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임을 연맹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젠더 정의를 향한 여정 위에 있는 공동체

LWF는 조직 및 구조 수준에서의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서약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 1997년 홍콩에서의 제 9차 총회에서, 성 평등에 대한 서약이 LWF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신학 및 성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의 관점에서 젠더와 권력을 정의와 관계 문제로 천명하고, 젠더와 권력을 리더십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2003년 캐나다 워니펙에서의 제 10차 총회는 이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수많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및 사회 생활에서 여성과 청년의 온전한 포용을 장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교회의 봉사 경험은, 이웃에 대한 깊고도 열정적인 돌봄과 결합될 때에야 신학적 성찰이 의미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바는, 바로 고통 받고 억압 받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함께 하는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공적 영역과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 활동 속에서, 그리고 신앙이라는 풍요로운 보물로부터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교회는 시민이 되거나 고유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교회 시민권은 신학적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창조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속적인 운동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발걸음에 의해,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아픔, 고통과 희망에 동참하는 깊은 연민에 의해 최초로 제공되어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 LWF가 전 인류의 완전한 권리와 평등 증진을 위해 일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리더십과 온전한 참여 증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봉사적 사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의 권리 지지에 대한 봉사적 접근 경험은 젠더 정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한 실제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2009년, 젠더와 권력에 관한 성찰 과정이 체계화되어, 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문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it will not be so among you)” 젠더와 권력에 관한 신앙 성찰>에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젠더 분석에 관한 신학적 성찰의 또 다른 예이며, 정책 개발이 근거로 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 더욱이, 교회들의 모임인 LWF는 젠더 정의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토대를, 인권 증진을 향한 업무에서 회원 교회의 경험 및 참여에 두어왔습니다. 교회 및 교회 조직의 젠더 정책은 범연맹적 정책 개발을 위한 토대입니다.

이러한 출발과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은, 회원 교회, 사무국,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의 모든 단계에서 LWF가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 기반한 특권 및 억압 시스템이 여성의 리더십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식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개념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보다 포괄적 접근법에 대해 성찰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을 테이블로”(출석) 데려온다는 개념을 넘어 “테이블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조건”(온전한 참여)으로 나아가간다는 것입니다.

I 성서 및 신학적 토대: 루터교회에서의 젠더 정의

LWF 연맹에서 젠더 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현하는 것으로서의 총제적 사명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루터교 신학에는 신앙 행위로서의 젠더 정의에 대한 연맹의 이해 및 상호 책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토착화는 루터교 신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LWF내에서



이것은 지역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LWF 정책 2012-2017에 따르면,

연맹 관계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의사 결정 및 실천을 위한 다양한 센터가 존재합니다. LWF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회원 교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어, 그들을 연결시키고, 지역적 및 전 세계적으로 결집시키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맹에 참여하고 형성하게 합니다. 회원 교회들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은 축복받아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유된 만남, 상호 도전,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젠더 정의는 이 많은 센터들 및 그들 사이의 대화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평등과 정의에 대해 성경은 LWF 연맹의 젠더 정의 이해에 대한 성서적 토대로서 이 정책의 처음 부분(p.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즉 다르지만, 평등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봐야 할 특권과 책임을 공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서로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젠더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계속되는 창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고 있습니까? 평등한 창조와 평등한 책임이라는 핵심 성서적 개념이 협력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책임이란 여러분의 문화적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의를 위한 책임의 함축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루터교 신학의 몇몇 근본적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 따라 LWF 회원 교회들은 젠더 정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격려 받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대화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완전한 협력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성경: 삶과 텍스트 사이의 대화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세상에 말해줍니다. 루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루터교 전통에서 핵심 질문은,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는 복음으로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불구인 여자를 치유할 때 그녀의 온전한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3:10-17).

이러한 관념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끕니다: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성과 남성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의 성경 텍스트의 독해와 해석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합니까?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오늘날의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하는 학문을 성서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루터교 전통은 동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미래에 열려 있는, 고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교의 신학적 관점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및 하나님 세계 안에서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함으로써 경직성에 저항하는 변증법적 긴장이 담겨있습니다.

루터교인들이 성경 해석에서 도움을 받은 독특한 가르침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만인사제직, 이신칭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성경(solo

verbo),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해석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그룹이나, 집회, 혹은 공동체에서든 성경을 읽는 것은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삶의 현실 모두를 비춰보는 텍스트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요구합니다. 삶의 경험의 이러한 다양성과 풍요로움은 삶과 성경 간의 공통된 배경 속에서 연결됩니다. 따라서 서면, 구두 및 언어적 해석에서의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이 성경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 요소들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역사적 맥락 이 불일치하는 배경 아래서 성경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루터교 연맹 내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맥락적 혹은 대중적 해석은, 맥락 및 공동체가 성경 텍스트와의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긴장을 식별해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는, 불의의 시스템에서 변화를 유발해내려는 의도를 가진 귀중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은 여성과 소외 그룹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젠더 정의 증진을 위한 빛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외 계층 및 그룹의 눈높이로 맥락화된 관점에서 성경 텍스트를 읽는 것은, 지역적으로 구체화되는 상황 신학을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권한 부여의 일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 갈등을 성경 이야기와 관련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은 젠더에 근거한 불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젠더 정의라는 문제는 성경의 증언과 기독교 전통에 신학적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성서적인 전통이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협력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결론은 대체로 가정, 교회 및 공적 영역의 맥락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목회 리더십에서 배제되며 공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지 못한 채, 가정 내에서의 책임만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소외를 지지하는 특정 성경 텍스트 및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 앞의 인류의 평등, 책임 있는 인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세례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성서 해석학적 혹은 해석적 도전과제들은, 현대 사회에서 경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텍스트와 초기 기독교 전통 자체에서도 명백한 문화적 맥락화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젠더 분석을 사용한 성경 텍스트에 대한 맥락적 해석은 오늘날 사회 및 교회의 여성과 남성 간의 불균형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비판적 해석은, 가부장적 구조에서 그러하듯 일부에게는 특권을 부여하고 일부는 억압하는 시스템을 영속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용이하게 합니다. 비판적 해석은 협력관계에 있는 소년과 남성, 소녀와 여성이라는 변혁적이고 정당한 관계 및 대안적 사회화를 향한 여성과 남성의 역동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는 구체화된 정의와 존엄성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경이 정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 어떤 성경 텍스트들이 젠더 정의를 지지합니까?
- 어떤 텍스트들이 여성과 남성 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에 반대하며 도전합니까?
- 이 모든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롭게 됨과 은총 :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한 개인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교회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정책에서 제안된 신학적 접근법은, 루터교의 정체성을 근거지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성서-신학적 개념 속에서 비롯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로마서5 참조).

의롭게 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신학적 접근 방식은 또한, 인간이 위계적이고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 종종 부당한 법률에 의해 지탱되는 지경에 의해 여전히 방향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근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엘리트 계급 사회로부터 혹은 가부장적 전통 및 가치들의 요구 사항의 충족

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simul iustus et peccator) 루터교의 관점에서, 이는 교회 및 사회가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의 역설적 상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저항의 권한이 부여되고 변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창조에 있어서 평등할 뿐 아니라, 죄에 있어서도 평등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심지어 한 명도 없도다” ... 모든 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로마서 3:10 23). 개인의 행실이나 행위의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동체 및 제도 역시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타인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게 끼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어느 부분이라도 해치는 경우 법률, 습관, 생각, 태도 및 정책 등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그룹의 인간의 가치를 다른 그룹의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죄입니다.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종속과 억압의 시스템은 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억압이라는 죄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한 시스템 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당한 구조를 극복하는 일이 여성과 남성의 모두의 책임을 함축합니다. 죄가 되는 시스템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비인간화하므로, 변화 및 변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동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젠더 정의는 협력과 정의를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삶을 조직화해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정당화는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도의 실존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부당한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한 토대를 교회에 제공합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마태복음 20:1-16)에서, 존엄성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일꾼들에게 평등하게 미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 일꾼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까?
-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 화육(embodiment)과 정의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되심과 정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까?
-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정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의 육체 속에서 인간의 삶을 공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즉 예측된 삶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타락한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가난하고 억압 받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의 삶을 영위하도록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듣고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출애굽기 2:24; 3:7)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생물학적 가족 시스템에 변형을 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마가복음 3:3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인간의 몸은, 그 모든 현실 즉, 고통과 기쁨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보다 깊은 관계를 확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요한복음 1:14). 성령에 의해 권능이 부여된 그리스도의 몸은 형제 자매의 새롭고도 공정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즉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26-27)

성령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교회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의는 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교회의 삶 안에서 인류는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어렵듯이 포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방적 정의가 펼쳐질 공간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정의가 구체화되는 형식을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언적 과업입니다. 이 과업이 교회를 움직이고 복돋아, 모든 관계



안에서의 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성육신 이미지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정의와 어떻게 관련됩니까? (즉,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정의와 관계를 맺습니까?)

성례전 : 원탁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

- 하나님의 성례전을 통해 어떤 종류의 자유를 약속하십니까?
- 성찬을 받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성령에 의해 서로 다른 재능, 능력, 역량과 기술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억압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고, 성찬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는 같은 테이블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평등하며 공동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용서와 새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 사이, 혹은 인간과 환경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패권, 차별, 혹은 억압도 정당화될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에 권면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지 아니하니라".(갈라디아서 3:26-28; 고린도전서 12:13 참조)

인류는 성별, 생물학적 조건 혹은 여타의 조건들과 관계 없이 예수님의 은총,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변화됩니다.

인종, 계급, 성별에 근거한 권력의 차이는 세례를 통해 변화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갈라디아서 5:1). 만인사제직은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보장 받도록 성령에 의해 부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유란 봉사하고, 창조하고, 평등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보살피고, 재능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특권과 억압의 시스템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젠더 정의는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경우, 사람과 조직 위에 젠더 정의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들인 참여, 투명성과 책임성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간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열어줍니까?
- 공유된 리더십의 실천이 어떤 맥락에서 개진될 수 있습니까?

교회론의 기둥 : 공유된 리더십과 평등의 제자직

- 세례가 리더십과 제자직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교회로서의 우리는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모순된 텍스트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세례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집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남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그리고 정당화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젠더로 인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수행한 일이나, 혹은 인격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창조성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할의 차별화가 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곳에서도 말입니다. 남성이라는 젠더에 여성이라는 젠더가 속해있다는 것은 창조 정신과도 전적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알맞은 도우미”(창세기 2:18)라는 구절이 인용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텍스트들에서 “도우미”같은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그 말은 충실한 상호 지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언덕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리라. 나의 도움(ezer)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ezer)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로부터이다.”(시편 121:1-2) 남성의 도우미로서의 여성에 대해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가 시편 1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도우미는 종속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상호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침묵”(고린도전서 14:34)해야 한다는 지침은 침묵을 요구하는 관련된 맥락과 분리되어 읽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을 통역할 자가 없으면, 각자는 “교회에서 침묵을 지키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할 지어다”(고린도전서 14:28) 라는 맥락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예언자의 경우 (고전 14:30),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으며, 만일 누군가 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침묵할 지니라”(고린도전서 14:30)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여성의 침묵은 경배를 명하는 보다 광의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 혹은 창조 순서가 이러한 지엽적 관심을 강조하는 방식에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여성은 교회의 모임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바울의 지침은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여성의 공개적인 발언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는 보편적 규칙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5) 양 텍스트 사이에는 명백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 긴장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서의 시대에도 맥락성은 존재하였으며, 해석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증해줍니다.

분명히, 쓰여진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신약의 텍스트는 만장일치로 성 평등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젠더의 위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텍스트들(예컨대 에베소서 5:21-24와 골로새서 3:18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요구)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들의 전통에 나타난 가르침의 맥락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리더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경 및 교회의 전통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에 여성 성직자가 존재했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함께 일했던 “여성선지자 미리암”(출애굽기 15:20)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데보라도 있었습니다(사사기 4:4). 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확인하고 그가 성전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그를 축복하였습니다(누가복음 2:36). 예수님에게는 많은 남성 및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뒷바라지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2-3; 또한 마가복음 15:41)

이 여성들 중 다수가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었습니다(누가복음 24:22; 요한복음 20:11-18). 로마서 16장에서는, 프리실라와 같은 바울의 동료(로마서 16:3) 및 유니아와 같은 사도(로마서 16:7)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이 서로 다른 역할과 직무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불굴의 증언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었습니다(예를 들어,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

교회는 사회적 정체성과 규정들, 그리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화적으로 영향 받은 해석들을 반영합니다. 교회의 침묵과 무위는 공모 행위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번영을 촉진하여, 사회 및 문화적 규범을 근거로 여성과 일부 남성을 소외시키는 관행들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신학적 자산을 지금까지 사용해오지 않았습니다.

- 교회로서의 우리는 일관성 없는 성서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와 사회에 부정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저 허용하고 있어야 합니까?
-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여러분은 교회라는 상황에서의 젠더 정의가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I 상황을 고려한 실행 계획을 위한 지침과 도구

모니터링과 책임: 연맹 사무국은 프로그래밍 작업에 대한 제도화된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을 책임질 것입니다. 진행 평가서는 사무 총장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LWF 젠더 정의 정책에 대한 이 섹션은 루터교 연맹 구석구석까지 실천적 도구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부 실천적 도구들은 규정되기보다는 제안됩니다. 그 도구들은 연맹 사무국과 월드 서비스 국제 프로그램의 스텝뿐 아니라 회원 교회의 지도자 및 집단들 간 모든 층위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공유를 장려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젠더 정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LWF 전략 2012-2017에서 합의된 것처럼- LWF는 모두를 위한 존엄성과 정의 및 그 과업과 사명을 뒷받침하는 다양성, 포용, 참여,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라는 가치들에 헌신합니다.

젠더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목록이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 평가

각 지역의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서 신학적, 인도주의적으로 젠더 정의 논의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을 인도하는 조직화 프레임 워크의 일부로서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법은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삶의 경험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적 평가 과정에서,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젠더 부정의는 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협력과 더불어 여성의 권한 강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종종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젠더 분석을 통해 이러한 권력 관계를 명시적으로 명명하고 상세히 조사하면 상황 평가에 있어 효과적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젠더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여성과 남성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불평등과 불의를 초래하는 차이에

대한 탐구

- 성 평등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적 지위, 생물학적 요구, 경제 상황과 인종 및/또는 성 정체성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에 근거한 노동 분업 및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

젠더 분석의 의도된 결과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여성/소녀 및 남자/소년 사이의 정당한 관계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1.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젠더에 근거한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분류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2. 개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설계의 근거를 통계적 분석 결과에 둡니다.
3. 젠더 분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및 관리 결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젠더에 근거한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 및 통제 패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 방법

젠더에 근거한 억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젠더 문제에 대한 성찰로 인도하고, 참여하게 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가장장적이고, 비포용적인 가치들에 도전하는 젠더 정의 실천을 선도하는 대화가 장려되어야 합니다.

새로움을 확립하고 현재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대화와 변화를 발생시키는 데 중추적입니다. 총체적 선교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젠더 정의를 다루기 위해서, 공동체, 가정, 회원 교회, LWF의 관계부처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단계에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및 회원 교회들의 업무를 통해 참여가 보장됩니다:

1. 여성과 남성을 함께 불러모으고, 서로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비전을 그리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각자 깊이 경청하고, 주의 깊게 성찰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공간 및 플랫폼들을 제공합니다.
2. 갈등 해소를 위한 도구와 방법론을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동맹과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3.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전략적 관심 및 실제적인 요구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사이클에서 공평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생산 및 재생산 역할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젠더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결정을 위한 지침cross cutting :

젠더 정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로 정치적, 전략적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정과 구조, 계획,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획, 실행,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에 있어서 방법론적 전환 뿐 아니라 젠더 정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젠더 분석이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의도적 구조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UN은 공식적으로 젠더에 대해 1997년 ECOSOC(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계획된 행동에 있어서의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함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은 LWF에서 제시하는 젠더 정의를 주요 담론으로 제안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들입니다:

1. 분석적 도구로서의 젠더 정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맵을 그리고 상세히 조사하며, 법률 및 다른 법적 도구들, 문서,

인적 자원 정책, 언어 정책 등을 검토합니다.

2. 남성/소년 및 여성/소녀에 대한 프로그램 및 기획의 이점 및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젠더 인지 지표(양적 및 질적)를 규정합니다.
3. 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지는 조직 내의 핵심 인물 및 그룹을 정합니다.
4. 젠더 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장려합니다.

I 역량 개발

여성과 남성이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을 존중하는 것은 교회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지위를 표현하고 포용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가치와 관행들 속에서도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행동이 예언적 설교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 및 여성의 역량을 구축 및 강화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젠더 정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서약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다채로운 구성원 및 공동체를 창작하여, 다양한 단계에서 능력 개발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젠더 정의 관점에서의 역량 구축 전략:

1.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 폭력 및 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2. 젠더 문제와 동등한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남성을 바라보며 남성성의 모델에 대해 성찰합니다.

3. 성경에 근거하여 젠더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경 스터디 그룹을 지원합니다.
4. 신학교 및 신학 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에, 젠더 정의를 포함시킵니다.
5. 교사, 자원 봉사자, 교회 사역자, 목회자를 위한 공식 및 비공식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젠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젠더 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여성들에게 신학 교육을 독려하고 신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여성 안수를 위해 신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야 합니다.
7. 젠더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젠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8. 젊은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목표가 뚜렷한 역량 강화법을 개발합니다.
9. 각 교회의 목회자와 총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칭과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젠더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여길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힘을 부여합니다.
10. 조직 구조 내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조직 편성

포용적인 LWF 연맹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향합니다. 이는, 교회 및 연맹의 다른 표현들 속에서 공유된 리더십이라는 변화된 형태를 지지하며,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다양한 연령 및 문화를 막론, 다양한 그룹의 남성과 여성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줄 전략 개발 및 행동 실행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용적 실천은 연맹에게 교회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개방된 환대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예언적 과업을 실현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해내는 지속 가능한 연맹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총회의 결정은 교회 내부에, 리더십 영역에서 여성의 재능을 포용하고, 모든 지배 구조 안에서 포용성을 촉진할 조치가 취해지고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원 할당제는,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참여에 도달하는 여정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다양한 실질적 장애에 맞서기 위해 기획된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리더십에서 여성과 남성의 온전한 참여와 동등한 대표성을 포용하는 교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여성 안수는 신학적 확언의 한 표현입니다.

여성 안수는 교회의 상황에서 여성의 시민권 확립의 토대이자 교회에서 젠더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1. 대화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 및 교회 멤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동 변화를 촉구합니다.
2. 연맹 사무국에서 2012년 획득한 성 평등 급여 증명서에 대한 표준 및 요구 조건을 유지합니다.
3. 젠더 균형에 대한 제 11차 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LWF 스텝, 행사, 회의, 위원회 및 그룹에 의 포용적 참여 및 대표권을 적용합니다.
4. 권력 남용 및 성적 착취에 관한 LWF 스텝의 행동 강령이 예외 없이 전 스텝에 의해 지켜지는지를 확인합니다.
5. 연맹 및 제휴 조직들에서, 조직에 대한 젠더 심의제를 실행합니다.

6. 조직의 예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젠더 인지적인지를 확인합니다.
7. 젠더 정의 정책 활동을 모니터하고 조정할 지정된 책임을 가진 조직(연맹 사무국, 회원 교회 및/또는 제휴 조직) 내에서 젠더 초점 스텝 그룹을 결성합니다.
8. 리더십과 의사 결정 기구에의 평등한 참여를 확인합니다.

안전한 장소 및 치유의 공동체:

젠더와 관계된 폭력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창조를 훼손하고, 정당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은 치유 사역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상호 협력하여 피해자 및 상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치유 과정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신고 및 사역은 또한, 젠더와 관계된 폭력의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성들 또한 남성성의 모델이 폭력과 통제를 떠받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젠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규범적 혹은 전통적이거나,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젠더 기반의 억압과 폭력은 범죄이며,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젠더에 기반한 억압과 폭력은 복음과 모순됩니다.

젠더와 관계된 폭력을 신앙의 문제로서 다루기 위한 전략:

1. 법률, 공공 정책, 문화, 또는 교회의 관행이 젠더 정의를 따르지 않거나 젠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젠더 정의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새로운 관행, 법률과 공공 정책을 개발합니다.
2. 비상 사태, 대피소 및 난민 캠프 상황을 포함하여, 여성 대한

그리고 젠더에 근거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남성, 소년, 소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3. 다른 전 기독교적 표현, 시민 사회 단체, 관련 유엔 기구 및 젠더 정의를 촉진하는 하는 정부기관과 함께, 관계와 네트워크, 그리고 리더십을 촉진하고 강화합니다.
4. 봉사 활동 지원, 성서 및 설교학적 자원 정교화, 교회를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시민 사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No”라고 말하는 교회를 위한, LWF 행동 계획에서 제안된 행동들을 통합합니다.

시스템 및 상호 책임의 메커니즘:

상호 책임성 및 개방적인 의사 소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제도가 젠더와 관계된 억압을 정기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해내는 곳에서, 투명한 상호 책임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관행들이 신학적 원칙 및 정책과 일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LWF 연맹 내의 모든 구성원들 간에 상호 책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책임, 절차 및 메커니즘이 내부 및 외부 파트너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상호 책임은 이웃에 봉사하는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좇아,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편에서 목소리 높여 대변할 임무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법을 옹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리고 사회 변화에 필요한 요인이 되기 위한 자신들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폭력과 무력 충돌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에서, 교회는 국제 인도주의 법에

대한 존중을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 관심, 권리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비상 사태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보호 및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 또는 재난의 시초에서부터의 젠더 문제 통합은, 제공된 인도주의적 원조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부주의하게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봉사를 받으며,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근본이 됩니다.

전략은 다음의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1. 법적 규정 및 관련 UN 조약에 대한 인식 제고 (세계 인권 선언, CEDAW(여성 차별 철폐 협약), 카르타 원칙, 유엔 결의안 1325, 제네바 협약 및 추가 프로토콜); 그리고 Belem do Pará와 같은 지역 기구.
2. 개발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법(RBA) 장려.
3. 젠더 정의 접근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증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권력 남용, 관련 문제들을 완화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모든 개입을 지지하는 인도주의적 원칙 및 행동 강령 채택.
4. 젠더 접근 방식을 통한 비상 사태 대비 훈련 장려
5. 프로그래밍에서 “해 없는” 접근 방식 사용.
6.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사용 기회 창출.



용어해설

젠더 여성 혹은 남성의 자질과 기회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차별과 연관되어진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여성 혹은 남성에게 무엇이 기대되고, 허락되며, 평가되는지를 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기회뿐 아니라 역할과 할당된 책임, 수행하는 활동, 자산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젠더 분석 어떤 상황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이해하는 도구. 젠더 분석은 동일한 문제가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하고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한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에 도전한다.

젠더 균형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대표권 및 참여를 의미한다.

젠더 분석 데이터 : 성별로 분리된 통계 정보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젠더 및 성별 데이터 : 비교적인 젠더 분석을 위한, 젠더에 의한 데이터와 통계 정보 수집. 전체 인구에 대한 인문학적 응답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

성 평등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을 위한 평등한 기회 및 권리와 책임을 의미한다.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똑같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기회, 권리, 책임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태어난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심, 필요, 우선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형평성은 젠더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각각의 요구와 관점에 따라 여성, 소녀, 소년, 남성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의미한다.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적, 사회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젠더 정체성 자아-확인 및 자신에 대한 견해와 자기 표현을 의미한다. 그것은 소년 또는 소녀, 남자 또는 여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문화가 하나의 성 혹은 다른 성에 속한다는 사실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든 속성 및 특성이다.

젠더 정의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청지기인 여성과 남성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젠더 정의는 평등 및 여성과 남성 간의 균형 잡힌 권력 관계, 그리고 차별을 만드는 제도적, 문화적, 상호 인간적 특권 및 억압 시스템의 제거를 통해 표현된다.

젠더 차별 철폐 교육 : 젠더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젠더를 다루는 과정이다.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영속화되지 않도록,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과 경험들까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 활동의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하기 위한 불가결한 차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1997년 ECOSOC(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근거)

젠더 민감성: 모든 영역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남성의 상이한 필요, 역할,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sex)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성차는 남성과 여성의 몸과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성별-분석 데이터: 남자, 여자, 소년과 소녀 사이의 차이에 대한 양적 통계 혹은 수치 정보

여성 우대정책 women's empowerment 여성의 지배에 대한 인식을 계발하고, 그에 도전할 수 있는 여성의 집단적 역량을 구축하는, 젠더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배제와 차별의 역사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은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업무와 권한 부여에 특수하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 과정은 여성이 자신감을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아-존중은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여성의 포용과 우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교회, 및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성의 지위 향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 결정 능력과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젠더 정의 Gender Justice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